

‘나주정미소’에서는 문화예술을 만든다

〈情味笑〉

100년 역사 호남 첫 정미소·항일운동 현장 ‘난장곡간’ 공식 개관 앞서 26일 쇼케이스 ‘문화콘서트 난장’ 전용 공연장 등으로 활용

100년의 역사를 가진 옛 나주정미소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나주정미소는 나주시 성북동에 위치한 호남 최초의 정미소로 전라도 최대 곡창지대였던 나주평야에서 수확한 곡식을 쌀로 생산하던 장소다.

나주시와 나주시도시재생협회는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폐허나 다름없던 정미소를 탈바꿈시키는 데 힘을 모았고, 역사를 묵묵히 지켜왔던 100년 된 붉은 벽돌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을 보강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정과 맛을 간직한 웃음꽃 피는 나주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주정미소(情味笑)’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다.

나주정미소는 근현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다. 1920년 무렵에 만들어진 나주정미소(박준삼 건립)는 쌀을 생산하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1929년~30년 무렵에는 학생독립운동을 도모하던 곳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였던 나주학생 만세시위 등 항일운동의 주역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나주항일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준삼은 박준삼의 동생이다. 금호그룹 창업자 고 박인회 회장이 1950년부터 1971년까지 그룹의

기반을 다질 무렵 죽호정미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의미와 소소한 사연을 품고 있는 나주정미소 부지에 남아있는 4개 동의 건물 중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한 공간은 나주 시민들의 문화공간, 다양한 예술의 전시공간, 뮤지션들의 창작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동 중 2개는 내년 여름 리모델링을 거쳐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광주 MBC가 제작하는 ‘문화콘서트 난장’ (연출 김민호) 전용 공연장인 ‘난장곡간’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대한민국 생음악 중심 ‘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난장곡간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난장곡간이라는 이름은 공간에서 비롯됐다. 음악을 뜻하는 곡(曲)과 공간이 합쳐져 곡간이라는 단어로 탄생했다. 난장곡간은 ‘문화콘서트 난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통해 음악과 추억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김민호 PD는 “대한민국 대중음악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고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문화 활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2월 6일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의 공식 개관 앞서 26일 오후 5시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 무대와 난장 쇼케이스가 펼쳐진다. 쇼케이스 무대에서는 ‘문화콘서트 난장’의 새로운 MC를 공개하고, 정다환, 마이진, 김다나 등

트롯트 가수를 비롯해 더블유24, 밴드 타카피, 트로트 요정 요요미가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아시아 10개 방송사가 공동제작하는 글로벌파워뮤지션 발굴프로젝트 ‘아시안 탑 밴드’ 제작설명회를 가지며, 이호준 사진작가의 ‘나주를 걷다’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시도시재생협회는 관계자 이상명씨는 “지난 봄 리모델링을 시작해 곧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며 “나주뿐 아니라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창조적인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강원도 영월군에는 매일 밤 ‘두개의 달’이 뜬다. 하나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달이고, 다른 하나는 영월군 덕포리의 밤 하늘만 밝히는 달이다. 영월군에 두 개의 달이 뜨게 된 건 ‘월담’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부터다. 은은한 달빛 아래 서책을 읽었던 옛 조상들의 감성을 되살리기 위해 도서관의 상자로 LED 달을 옥의 조명몰로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날이 어둡해지는 밤이면 월담 도서관의 ‘존재’는 더욱 강렬해진다.

지난 2014년 개관한 월담 도서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영월군은 영월읍 덕포리에 3억 원의 예산

9440여 권의 도서를 대여하는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고무된 영월군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953.82㎡로 증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취재자 들른 암스테르담 도서관은 ‘모두의 놀이터’를 보는 듯 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로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즉석에서 공연할 수 있다.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 피아노라니. 처음엔 의아스럽지만 도서관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나면 저절로 이해가 된다. 도심재생 일환으로 건립된 암스테르담 도서관은 마치 백화

대표도서관, 고정관념을 깨라

을 들어 단층규모의 아담한 도서관을 건립했다. 메인 공간인 어린이 열람실을 비롯 다목적실 등을 갖춰 1만1000여권의 도서와 수백 개의 DVD 등을 비치했다.

특히 월담도서관은 ‘도서관=정숙’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위해 화려한 색상과 인테리어로 꾸민 열람실에선 팽이놀이 일종인 블레이드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한쪽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도 싫증이 나면 책상에서 일어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참여한다.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들은 열람실 한켠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아이와 엄마들의 도서관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아빠들의 일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 도서관과 담을 쌓았던(?) 아빠들이 가족을 픽업하기 위해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만 1만4520명이 방문해 1만

점에서 소풍하듯 둘러보면서 정보를 탐험하고 일상을 즐기는 ‘인포테인먼트’ 공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암스테르담 도서관의 매력은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분위기다. 어둡고 삭막한 모습 대신 화려한 조명의 쾌적한 인테리어는 근사한 카페가 부럽지 않다. 1층 로비의 에스컬레이터 옆 전시장에는 연중 예술가의 작품이 내걸리고 어린이 열람실에선 동화구연과 마술쇼가 펼쳐진다.

광주시가 서구 옛 사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19일 ‘국제건축설계공모’에 착수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사무소각장 부지를 재생시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총 39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1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문화적 자산이 확보되고 소각장의 장소성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과 통(通)하고 도시를 빛내는 ‘미래 도서관’의 탄생을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GIC 클라빌레 “광주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며...”

‘3·1운동 100년만의 외출’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3·1운동 100년만의 외출, 그 정신을 기리다’ GIC 클라빌레가 3·1운동 당시 활동한 광주의 여성독립운동가 23명을 기리는 음악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GIC 클라빌레는 2002년 만들어진 광주국제교류센터 산하 음악단체로 작곡, 기악, 성악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 모여 문화, 예술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3·1운동 100년만의 외출, 그 정신을 기리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연은 ‘선생님 독립운동가’, ‘16세 최연소 독립운동가’, ‘17세·18세·19세·20세 수피아 여학생 독립운동가’, ‘수피아 출신 간호부 독립운동가’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날 상영되는 영상은 광주수피아여고 동문회에서 기획하고 제작했다.

레퍼토리는 흥남파의 ‘고향의 봄’, 한울의 ‘홀로 아리랑’, 정애련의 ‘강변 아리랑’, 김현옥의 ‘들리지 않는 노래’, ‘세노야’, ‘아리랑’, 신귀복의 ‘얼굴’, 신동수의 ‘산야’, 최영섭의 ‘망향’ 등이다. 스페인 민요 ‘새의 노래’, 아일랜드 민요 ‘대니보이’, 한국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요섭수크의 ‘엘레지’도 선보인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박수연, 김애영, 이찬순, 이명진,



김대수 오승석 진채리 김미옥, 윤한나, 김선희 등이 오르며 바리톤 김대수, 바이올린 양새미, 첼로 오승석, 진채리, 피아노 김준형 등도 무대를 꾸민다. 고려인 어린이합창단도 함께한다. 티켓은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22일 ‘고문학 한·중 인문포럼’

(사)빛고을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사업회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2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고문학의 재발견-로컬에서 본 최치원’이라는 주제로 ‘고문학 한·중 인문(人文)포럼’을 개최한다.

최치원(857년~?)은 유교·불교·도교에 깊은 이해를 지녔던 신라 말기 대학자로서 한국 인문학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나라에서의 탁월한 업적에 힘입어 한·중 문화교류의 선구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문포럼은 최치원의 학술사상을 조명함으로써 ‘고문학’의 인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고문학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획했다. 또 최치원과 관련해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건립된 ‘지산재’를 근간으로 해 지역의 시각에서 ‘고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정경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남의 최치원 관련 유·무형 유산의 고찰’, ‘최치원적(崔致元的) 사상연구’, ‘최치원과 호남’, ‘최치원의 한국사상적 위상과 지산재’ 등의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남대 정명중 교수와 전남대 김창규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펼쳐진다. 또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이계무 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21일 임현채 작가 진행

(재)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이 21일 오후 6시 임현채 작가 작업실에서 열린다.

임 작가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공간과 사물의 흔적들을 무수한 서사로 펼쳐낸다. 개개의 삶을 투시하고 교감하던 작가의 사색에서 현실 교감으로 이어진 작가만의 감성은 보다 무게감 있는 울림을 준다. 임 작가는 2004년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낯선이와 빵을 먹어본 적 있는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임현채 : 그림에도 불구하고’까지 9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19 광주 미술상 수상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광주 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2016년 호랑가시나무장작소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신청마감 21일.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